

「산」 _ 김광섭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서는
 새벽녘이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는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옆땀다가는
 해 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틀만 남겨 놓고 먼 산속으로 간다

산은 날아도 새둥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들의 굴속에서도
 흙 한 줌 돌 한 개 들썩거리지 않는다
 새나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 봐
 지구처럼 부동의 자세로 떠 간다
 그럴 때면 새나 짐승들은
 기분 좋게 옆대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꾸다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 가다가도
 고달프면 쉬란 듯이 정답게 서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
 산은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높은 꼭대기에 신을 뒀신다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산은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

산은 한 번 신경질을 되게 내야만

고산(高山)도 되고 명산(名山)도 된다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

- 김광섭, 「산」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산'에 인격을 부여하여 산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에서 산은 배려심이 깊고, 포용력이 있으며, 너그럽고 신성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덕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산을 경외의 대상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대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1연: 늘 인간 세상과 함께하는 산의 모습
- 2연: 모든 생명을 배려하는 산의 모습
- 3연: 인간과 함께하려는 산의 모습
- 4연: 세속적 가치를 거부하는 산의 모습
- 5연: 인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산의 모습
- 6, 7연: 인간적 감정과 속성을 지닌 산의 모습
- 8연: 포용력을 지니고 있는 산의 모습

✓ 주제 : 산을 통해 배우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

- ① 1연은 독백의 방식으로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의 산의 모습을 표현하여 인간과 함께하는 산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에서는 산이 인간 세상을 경험하고 다시 봉우리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인간 세상의 부정적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③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 사람을 다스린다'에서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은 산이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는 것으로, 화자가 산을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무를 기르는 법'은 생명을 기르는 인내심을,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은 욕심과 오만을 버려야 한다는 겸손함을 깨닫게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 ④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에서 화자가 두 계절이 공존하는 산의 모습을 보며 산이 서로 다른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을 지녔음을 예찬하고 있다.
- ⑤ 이 작품에서 산은 인간을 좋아하는 친근한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덕성을 지니고 있어 경외감을 주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한다.
- ⑥ 산이 '들썩거리지 않고' '부동의 자세로 떠' 가는 것은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자연의 덕성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⑦ 산이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 높은 꼭대기에 신을 띄'우고 산다는 것은 산이 인간의 죽음마저 받아 주는 너그럽고 신성한 존재임을 드러낸 것이로군.
- ⑧ 산이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는 것은 경외의 대상인 산이 인간적인 면모(감정과 욕망)도 지니고 있어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기도 한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로군.

[THE - 깊은 독해]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서는

→ 화자가 제시되어 있다. 이때 '내가 사는 데'는 화자가 거주하는 곳을 가리키는 데, 위의 맥락을 고려하면 산과 가까운 인간 세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새벽녘이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는

→ 새벽녘에 산의 그림자가 마을에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 나타낸 것이다. 이때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라는 표현은 산의 고고하고 의연한 모습을 나타낸다. 산이 마치 생명을 가진 것처럼 날개를 편다고 하였으므로, 활유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쭉'이라는 음성 상징어도 사용되어 있다.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옆땀다가는

→ 이 또한 하루종일(낮 동안) 산 그림자가 마을에 드리워져 있는 모습을 비유로 나타낸 것이다. 조용히 인간 세상을 감싸는 산의 덕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옆땀'은 옆드러다의 방언이다. 또한 여기서는 활유법 중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해 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틀만 남겨 놓고 먼 산속으로 간다

→ 해가 지면 산 그림자는 사라지고 산의 형태만 남아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새벽녘에서 종일(낮), 그리고 해 질 무렵에 이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대상의 변화(산 그림자가 생겼다가 사라짐)가 나타난다. 여기서도 활유법이 사용되었다.

▶1연 : 인간 세상을 감싸는 산 그림자

산은 날아도 새둥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들의 굴속에서도

흙 한 줌 돌 한 개 들썩거리지 않는다

→ 다른 생명체나 사물에게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는 산의 덕성이 드러난다.

새나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 봐

지구처럼 부동의 자세로 떠 간다

→ 짐승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다른 존재들에 대해 배려하는 산의 덕성이 드러난다. '지구처럼 부동의 자세'라는 것은 지구 기 실제로는 회전하고 있지만, 지구에 사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산 또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다른 존재들을 배려한다는 뜻이다.

그럴 때면 새나 짐승들은 / 기분 좋게 옆대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꾸다

→ 산의 배려로 인해 생명체들이 평화로운 삶을 꿈꾸는 상황이다. 해당 구절에서도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2연 : 다른 생명체를 배려하는 산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 가다가도

고달프면 쉬란 듯이 정답게 서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

→ 사람들이 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면, 산이 고달픈 인간에게 안식을 제공하고, 사람들을 정답게 대하며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산의 다정다감하고 자애로운 덕성이 드러난다.

산은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 사람이 죽은 후에 묻힐 곳을 제공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산의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덕성이 드러난다.

높은 꼭대기에 신을 뒀신다

→ 산의 신성함이 드러난다.

▶3연 : 인간과 함께하는 산의 모습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 의인화를 통해 인간 친화적인 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

→ 인간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봉우리로 올라가는 산의 모습을 통해, 부정과 불의, 혼란한 인간 세상을 멀리하는 산의 고결한 덕성이 드러난다. 어지러운 속세를 떠나 은둔하는 은자의 모습이 엿보인다. 인간 세상의 혼탁함에 대한 비판적 의도가 드러난다.

▶4연 : 혼탁한 세상을 거부하는 산의 모습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 여기서 '나무를 기르는 법'은 정성과 인내를 다하여 생명체를 기르며 성장을 기다리는 태도 즉, 인내심을 의미한다.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 여기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은 위험에 직면하여 욕심과 오만을 버리고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 즉, 겸손함을 의미한다.

사람을 다스린다

→ 사람을 통솔하며 인내와 겸손을 가르쳐주는 산의 모습을 통해, 산의 스승으로서의 면모가 드러난다.

▶5연 :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는 산의 모습

산은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산봉우리는 산이 울적함을 달래기 위해, 산의 계곡은 산이 물소리를 듣고 싶어서 생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의 감정을 지닌 산의 모습을 제시하여 친근한 존재로서의 산의 이미지가 드러난다. 또한, 상승의 이미지('솟아서')와 하강의 이미지('내려와')를 대조시켜 산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산은 한 번 신경질을 되게 내야만
 고산(高山)도 되고 명산(名山)도 된다

→ 고산과 명산은 산이 신경질을 낸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즉, 산이 높고 험하게 솟은 것을 산이 신경질을 낸 것이라고 의인화하고 있다. 이때 '신경질'이라는 표현은 산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고산'과 '명산'은 성숙한 존재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6-7연 : 인간적 감정을 지닌 산의 모습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 고도에 따라 온도나 모습이 다른 산의 특성이 드러난다.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

→ 두 계절이 공존하는 모습을 통해, 포용력 있고 조화로운 산의 덕성이 드러난다.

▶8연 : 포용력을 지닌 산의 모습

→ 다양한 '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인간의 바람직한 삶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산에 대해 예찬적인 태도가 담겨 있다.

#이 작품에서의 '산' [출처 :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이 작품은 <성북동비둘기>와 비슷한 시기에 씌어졌고, 병중(病中)의 역경을 정신력으로 극복하며, 삶과 사람과 자연을 일체감 속에 표현함으로써 절찬을 받았다.

이 작품에서 보여 주는 '산'은 과거의 전통적인 자연에 찬이나 서정위주(抒情爲主)의 '산'만은 아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절대성 속에 인간의 삶, 인간의 갖가지 양상까지를 의인화(擬人化)하고 있다. 가령 4연의 '산은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높은 꼭대기에 신(神)을 뒀다'와 같은 표현에서 산의 숭고함과 관대함, 그 다사로운데 우리는 자연이 주는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7연에서 '산은 답답하면 솟아서 높은 봉우리가 되고/물소리가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거나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사람 사는 풀이 어수선하면/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와 같이 산의 자세로써 인간의 자세를 암시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산'은 자연 그대로의 감각이나 정서가 아니라 곧 인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수능적 독해 Point]

- 화자 : 화자 '나'가 걸으로 드러남 [산의 덕성을 닮으려는 이]
- 상황 : 산의 다양한 모습을 제시하며 산이 지닌 덕성을 드러냄
- 정서·태도 : 관조적, 사색적, 예찬적, 교훈적, 깨달음

[연 관 - 기 출 문 제]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벌목정정(伐木丁丁)*이랬거니 아람도리 큰 솔이 베혀짐
즉도 하이 꼴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 즉도
하이 다람쥐도 쫓지 않고 뫼새도 울지 않아 ㉠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빠를 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
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곱을 걸음이란
다? ㉡ 웃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좇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
다 차고 울연(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 정지용, 「장수산 1」 -

- * 정정: 커다란 나무가 베어질 때 나는 소리.
- * 멩아리: 메아리.
- * 조찰히: 아담하고 깨끗하게.
- * 울연히: 홀로 우뚝하게.

(나)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서는
㉢ 새벽녘이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는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옆뎠다가는
해 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틀만 남겨 놓고 먼 산 속으로 간다.

산은 날아도 새둥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들의 굴 속에서도
흙 한 줌 돌 한 개 들성거리지 않는다.
새나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 봐
지구처럼 부동(不動)의 자세로 떠간다.
그럴 때면 새나 짐승들은
기분 좋게 옆대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꾸다.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 가다가도
고달프면 쉬란 듯이 정답게 서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

산은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높은 꼭대기에 신을 뫼신다.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를 올라간다.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산은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

㉤ 산은 한 번 신경질을 되게 내야만
고산(高山)도 되고 명산(名山)이 된다.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

- 김광섭, 「산」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와 달리 (가)는 도치의 방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나 생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현재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형식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시적 공간의 모습을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2. (가), (나)에 나타난 '자연'에 대해 <보기>와 연관 지어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국의 시가에는 자연을 소재로 다룬 작품이 매우 많은데, 그때 자연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처럼 친근한 존재이자 무욕(無欲)의 특성을 지닌 존재로 동경과 동화의 대상인 경우가 허다하다. 즉 작품에서 자연은 아름다운 경치의 체험 공간으로 그려지기도 했고, 속세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공간이나 자신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공간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또 바람직한 덕성을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서 형상화되기도 하였다.

- ① (가)의 자연은 속세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공간으로 표현되었다.
- ② (가)의 자연은 화자가 자신의 삶의 자세에 대해 깨달음을 얻는 곳이다.
- ③ (나)는 자연을 의인화하여 자연에 대한 화자의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자연의 속성을 통해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덕성을 발견하고 있다.
- ⑤ (나)의 자연은 화자가 추구하는 탈속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화자가 느낀 적막감을 촉각적 심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 : '웃절 중'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③ ㉢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 혼탁한 인간 세상을 대하는 산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 : 날씨의 변화가 심한 높은 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4~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진다>

[B]

<바람은 넘실 천(千) 이랑 만(萬) 이랑
이랑 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C]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D]

<뽕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 볼 줄 모르나니
암컷이라 쫓길 뿐 / 수놈이라 쫓을 뿐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러 뿐>

[E]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아 오늘 밤 너 어디로 가 버리련?>

- 김영랑, 「오월」 -

(나)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서는

㉠ 새벽녘이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는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었댔다가는

해 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틀만 남겨 놓고 먼 산속으로 간다

산은 날아도 새둥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들의 굴 속에서도

흙 한 줌 돌 한 개 들성거리지 않는다

㉡ 새나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 봐

지구처럼 부동(不動)의 자세로 떠간다

그럴 때면 새나 짐승들은

기분 좋게 었대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꾸다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 가다가도

㉢ 고달프면 쉬란 듯이 정답게 서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

산은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높은 꼭대기에 신을 뒀신다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

㉞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산은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

산은 한번 신경질을 되게 내야만
 고산(高山)도 되고 명산(名山)도 된다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㉞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

-김광섭, 「산(山)」-

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시상의 전환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 ③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 ④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한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화자는 높은 곳에 서서 시적 대상을 바라보며 묘사하고 있다.

5. (가)의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색채 대비를 사용해서 봄날 마을과 들의 풍경을 선명하게 그리고 있군.
- ② [B] : 바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시어를 반복해서 봄날의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군.
- ③ [C] : 바람에 흔들리는 보리를 허리를 가진 것에 빗대어 관능적으로 나타내고 있군.
- ④ [D] :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꺾꼬리를 바라보는 화자의 부러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군.
- ⑤ [E] : 밤이 되면 보이지 않는 산봉우리를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군.

6.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에서 산은 비상하는 새의 이미지로 변용되어 있다. 산의 비상은 조심스러우며, 사람과 함께 날기도 하고, 마을을 향하기도 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화자는 인간과의 조화를 지향하며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노래한다. 그리고 시를 읽는 독자 스스로 산의 모습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 ① ㉞ :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기러기처럼 날아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산의 모습을 새에 비유하는군.
- ② ㉞ : ‘새, 벌레, 짐승’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하는 산의 모습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자세가 떠오르는군.
- ③ ㉞ : 고달픈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가는 산은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는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군.
- ④ ㉞ : ‘사람’을 ‘다스’리는 산의 방법에서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
- ⑤ ㉞ : ‘두 계절’을 동시에 ‘사이좋게 지니고’ 사는 산에게서 서로 다른 둘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을 배울 수 있군.

[All-바르게 확인하는 정답 및 해설]

1.

[정답 SCAN] ㉓

③ (가)와 (나)는 모두 현재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였지만, 두 작품 모두 현실 극복 의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가)에 현실을 견디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면, (나)는 현재형 어미를 통해 화자가 시적 대상인 '산'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인식을 전달하고 있을 뿐,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SCAN]

- ① (가)의 마지막 부분은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견디란다'로 서술하는 것이 문장의 정상적인 어순이지만, 시에서는 이 어순을 바꾸어 장수산의 고요 속에서 시름을 견뎌 내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도치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어순의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했다.
- ② (가)는 '희고녀!'와 같은 영탄적 표현으로 산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오오 견디란다'와 같은 영탄적 표현으로 현실을 견디겠다는 화자의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영탄적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 ④ (가)는 '~이 ~죽도하이', '~을 ~다?' 등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느끼게 한다. (나)는 대부분의 연이 '산은 ~다'의 문장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통해 운율을 느끼게 한다.
- ⑤ (가)는 장수산의 분위기를 청각, 시각, 후각 등의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로, (나)는 '산'의 다양한 모습을 주로 시각적 심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2.

[정답 SCAN] ㉔

⑤ (나)의 자연, 즉 산은 화자가 동화되고 싶은 바람직한 인간의 덕성을 지닌 대상으로,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산을 닮고 싶어 한다. 그런데 (나)는 화자가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은지, 또 산을 그런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답 SCAN]

- ① (가)의 자연은 깊은 산중으로, 승부에 집착하지 않는 '옷절 중'처럼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난 공간이다.
- ② (가)의 화자는 '장수산'에서 현재 자신이 시름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성찰하고, 앞으로는 아담하고 깨끗한 태도로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밝히고 있다.
- ③ (나)의 화자는 '산'을 마치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처럼 표현했는데, 이러한 표현에는 산에 대한 화자의 친근감이 담겨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산을 조화와 배려, 넉넉한 성품을 지닌 존재로 그리고 있다.

3.

[정답 SCAN] ㉕

⑤ ㉔의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산은 넉넉함과 자애로움으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을 따뜻하게 품으며 감싸준다. 그러나 산은 무한한 포용력만 지니는 것은 아니다. ㉔의 '신경질'은 바람직하지 않은 삶을 사는 인간에 대한 산의 엄한 꾸지람으로, 이로 인해 인간은 산의 소중함과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㉔는 날씨 변화가 심한 산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아니라, 인간에게 엄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 주는 산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SCAN]

- ① '뼈를 저리우는 데'는 장수산의 지극한 고요함을 촉각적 심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 ② '조잘히 늙은 ~ 내음새를 좇는다?'에는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난 '옷절 중'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새벽녘에 산이 '학'처럼 날개를 펴는 것은 햇살을 받아 산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남을 표현한 것이고, 해 질 무렵에 '기러기'처럼 날아 틀만 남기는 것은 해가 저물어 산이 서서히 어둠에 묻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④ 인간과 더불어 살려는 산도 인간 세상이 혼탁할 때에는 인간 세상을 떠나려고 한다. 즉 산은 혼탁한 인간 세상을 멀리하려는 태도를 지니고있다.

4.

[정답 SCAN] ④

④ (가)는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 산봉우리야’를 통해 보리와 산봉우리를 각각 의인화하여 봄을 맞는 자연을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나)는 산이 ‘정답게 서서 /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가기도 하고,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기도 하는 등 산에 인격을 부여하여 산을 친근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

[오답 SCAN]

- ① (가)는 오월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고 있으며,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나다’의 단정적인 어조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 ② (가)는 화자의 시선에 따라 오월의 풍경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산이 지닌 포용력, 조화로움 등을 표현하고 있지만,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감정 이입이란, 자신의 감정을 대상에 이입하여 마치 대상도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와 (나)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가)는 ‘들길’, ‘마을 골목’ 등 가까운 곳을 바라보다가 마지막에는 ‘산봉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것으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상이 전개되었다. (나)는 화자가 생각하는 산의 여러 특성들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가)와 (나) 모두 화자가 높은 곳에서 있지는 않다.

5.

[정답 SCAN] ④

④ ‘~이라 ~르 뿐’을 반복해서 햇빛에 반짝이는 피꼬리한 쌍이 서로 어울려 정답게 날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부러운 심정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답 SCAN]

- ① ‘붉어지고’ ‘푸르러’지는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마을과 들길의 모습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② 바람의 넘실거림을 ‘이랑’이라는 시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보리가 바람에 휘는 모습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난 것으로 의인화하여, 관능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 ⑤ ‘산봉우리야’라는 표현으로 산봉우리가 청자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오늘 밤 너 어디로 가 버리련?’은 밤이 되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는 산봉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정답 SCAN] ④

④ 산은 ‘나무를 기르는’ 인내심과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겸손함을 ‘사람’에게 가르치며 인간의 스승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이 구절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오답 SCAN]

- ① 화자는 새벽녘에서 해 질 무렵까지 보이는 산의 모습을 ‘학’과 ‘기러기’에 비유하고 있다.
- ② ‘짐승들이 놀랄까 봐 / 지구처럼 부동의 자세로 떠’가는 모습에서 다른 생명체를 섬세하게 배려하는 존재를 떠올릴 수 있다.
- ③ ‘고달프면’ 쉬게 하고 ‘같이’ 가는 산의 모습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⑤ 봄과 여름 ‘두 계절’이 공존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산의 모습에서 서로 다른 둘을 아우르는 포용력을 배울 수 있다고 할 수 있다.